

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 총평

- 사업 유형 및 심의분과 : 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심의
- 회의일시 : (1차) 2016. 8. 18(목) / (2차) 2016. 9. 2(금)
- 회의장소 : (1, 2차) 대학로 이음센터 3층 커뮤니티룸2

2016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음악분야 <오작교프로젝트> 사업은 25단체가 접수되었고, 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2단체를 제외한 23단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. 심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PT인터뷰 심의로 진행되었다. 1차 심의는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(40%),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(30%), 연주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(15%), 연주단체 기존활동실적(15%)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통해 2차 PT인터뷰 심의 대상을 선정했다. 2차 PT인터뷰 심의는 전속작곡가 운영계획의 실행가능성과 기대효과(40%), 작곡가 작품의 예술성(30%), 연주단체의 창작음악에 대한 관심과 수행역량(30%)을 기준으로 각 단체가 발표한 PT 및 질의응답을 통해 최종 지원단체를 선정하였다.

지원단체/작곡가의 유형과 지원 취지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, 오작교프로젝트의 기본 취지에 부합되는 단체/작곡가가 우선적으로 선별되었다. 따라서, 실내악곡 규모의 작품 정도만 제작/연주할 수 있는 지원단체는 이번 심의에서 제외되었으며, 보다 큰 규모의 작품을 연주할 수 있는 지원단체가 선정되었다.

또 다른 기본적인 심의 기준은 지원단체 경력 중 예술성이 보다 높은 연주회를 보여준 단체가 우선적으로 선정되었다. 양적인 연주 활동보다는 질적인 연주 활동이 보다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다.

지원단체/작곡가의 계획이 오작교프로젝트가 지향하는 가장 큰 목적, 즉 평소에 추구하기 힘든 큰 규모의 오케스트라에 의한 작품 제작 및 연주를 위한 창작품을 작곡한다는 취지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다. 모 지원단체/작곡가의 경우, 작곡자의 의도는 좀 큰 규모의 실내악곡을 제작한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았다. 이러한 상황은 거의 대부분의 지원단체/작곡가에 해당된다.

일부 지원단체/작곡가의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었으며, 예술적 가치를 최고의 위치에 두어야 할 오작교프로젝트에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

2016년도 음악 창작산실 오작교프로젝트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 일동